

한국사회에서 탈북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적응
- 초기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School Achievement and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 Adolescents

계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유가효**

한서대학교 청소년학과

부교수 방은령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한유진***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Yoo, Ga-Hyo

Dept. of Adolescent Studies, Hanseo University

Professor : Bang, Eun-Ry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ungj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an, Eu-Ge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initial adaptation processing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 Adolescents. Four children, four adolescents and Five faculties were participated in depth-interview.

Results indicate that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difficulties in adaptation. They hav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learning proficiency, confusion in curriculum, cultural gap, difficulty in making a friend, destruction in the family. But at the same time, we found out their unique and positive aspect which might help to overcome their problems.

In conclusion, specific concerns and policies should be provided to support their school achievement and social adaptation.

▲주요어(Key Words) : 탈북 아동·청소년(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 adolescents), 학업성취(school achievement), 사회적 적응(social adaptation)

* 이 논문은 2003년도 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 원고를 수정한 것임.

** 주 저 자 : 유가효 (E-mail : ykhdj@kmu.ac.kr)

*** 교신저자 : 한유진 (E-mail : yjhan@mju.ac.kr)

1. 서 론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북한 내 사회불안을 야기 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의 북한사회 이탈현상으로 이어져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의 수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도에 열명 남짓이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2000년도에는 312명, 2001년은 583명, 2002년은 1,141명으로, 2004년 6월말 현재 전체 탈북자는 5,170명에 이른다(조선일보, 2004년 7월 8일자). 최근에는 가족단위의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탈북 아동·청소년¹⁾ 수도 증가하면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가 매스컴에 보도되며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탈북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 탈북자에 비해 이전 문화의 습득률이 낮고 환경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적응이 수월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 아동·청소년은 성인 탈북자처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급격한 발달과 정체감 형성이라는 그 시기 고유 과제도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은 접촉 이전시기, 접촉시기, 갈등기, 위기기, 적응기로 구분되는데(Berry, 1988), 탈북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이주를 결심하고 준비하는 접촉 이전시기가 없이 갑자기 타의에 의해 북한을 탈출한 경우가 많다(엄경남, 2001). 따라서 오랜 기간 준비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진 성인보다 아무 준비 없이 새로운 문화를 맞이한 아동과 청소년이 문화적 충격과 심리적 혼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성인 탈북자와는 달리 탈북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야 하고, 통일 한국에서 역사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적응은 탈북자 개인의 행복한 삶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도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 연구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과 제도는 일반적으로 성인 탈북자 중심으로 편향된 경향이 있다. 탈북 아동·청소년은 일상생활을 비롯한 주요 삶의 영역과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요건이 성인과 크게 다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길은배, 2003). 이를 위해서는 우선 탈북 아동·청소년의 적응과정상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탈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현재 탈북한 북한인을 일컫는 공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며, 이들은 관련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듯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동법령, 제 2조 1항). 그러나 북한 이탈 아동·청소년을 일컫는 용어가 아직 통일되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탈북 아동·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어느 집단을 범주화할 때 범할 우려중 하나는 그 범주에 있는 사람은 모두 동질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이부미, 2003). 탈북자들의 욕구도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각각의 발달 단계와 환경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성인 탈북자의 경우, 경제적 적응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욕구로 보고 있으며, 경제적 차원은 사회문화적 차원과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윤인진, 1999; 전우택, 1997). 반면, 탈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박모란, 2002; 박선경, 1998; 박지영, 2001; 엄경남, 2001; 이기영, 2001) 이들이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두 가지 차원은 학업부담에서의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력을 중시하는 남한 사회에서 학업 성취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큰 의미를 갖는다. 학업성취는 학령기 적응뿐 아니라 이후의 직업 선택 및 인생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탈북자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정규교육과 성취를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과 지위상승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한다(한만길, 1999). 그러나 남북문화통합교육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의 72.7%가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학업 따라가기'를 꼽았으며(남북문화통합교육원, 2002 a), 탈북청소년의 전반적인 학업성취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박선경, 1998) 이들이 심각한 학업 부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적응은 결국 남한 청소년 하위문화에 적응하고 남한의 청소년들과 무리 없이 섞이여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이기영, 2001). 즉, 남한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화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 등 제 3국을 거쳐서 입국한 탈북 아동과 청소년은 남한 사회의 청소년 문화에 민감하며, 이들의 문화 속에 편입되려는 태도가 상당히 적극적이다. 연예인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며, 유행하는 춤을 잘 추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란 낙인으로 인한 친구관계 형성에서의 어려움, 연하의 청소년과 동급생이 되는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남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남한 청소년 놀이문화와의 괴리 등은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길은배, 2003; 엄경남, 2001).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탈북 아동·청소년의 적응문제는 학업과 사회적 적응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적응의 결과는 탈북 아동·청소년의 연령, 성별, 선행 경험, 개인의 목표 및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탈북 아동·청소년이 처해있는 환경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내적 특성에 따라 학업과 사회적 적응의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응 문제와 그 결과에 집중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파악하여 지원 프로그램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

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적응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탈북 아동·청소년은 하나원²⁾ 안에 설립한 '하나들 학교'에서 한국에서의 첫 학교생활을 경험한다. 하나원은 이전의 경험과 새로운 문화가 만나는 접점지대라는 점에서 초기 적응기간인 두 달간의 '하나들 학교'생활은 매우 중요하다(이부미, 2003). 이 기간 동안 탈북 아동·청소년은 새로운 체제에 접하면서 이전에 겪은 경험을 드러내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또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 초기 적응 시기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개별적인 이전 경험이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파악된다면,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 하나원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착지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 초기 적응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탈북 아동·청소년들의 초기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서의 학업성취와 사회 적응을 먼저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2개월간의 과정에 중점을 두어 살펴본 다음, 하나원 수료 후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파악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탈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몇몇 선행연구(길은배, 2003; 박선경, 1998; 엄경남, 2001; 이기영, 2001)들은 청소년이나 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동을 다룬 연구는 극소수(박모란, 2002)에 불과하다. 탈북 청소년은 사춘기에 수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여느 청소년보다 더 큰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시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비행문화를 접하게 되면 혼란 속에 분별력을 잃어버려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탈북 아동의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적응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누적된다면 이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러 참았던 문제를 폭발적으로 표출하게 되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박모란, 2002). 그러므로 아동기에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면 청소년기의 적응에도 더 큰 도움과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적응 문제가 노출되는 청소년기뿐 아니라 문제가 잠재된 아동기도 연구에 포함하여 각 발달 단계별 문제를 파악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탈북 아동·청소년들의 적응과정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면접만으로 이들의 내면적인 특성을 온전히 발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탈북 아동·청소년의 경우 오랜 도피 생활과 조사기간을 거쳐 하

나원에 수용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정보를 얻는 원천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탈북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장완성검사를 실시하여 저항을 줄이면서 좀 더 쉽게 자기 노출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대상 시설에 대한 참여관찰 내용과 비치 문서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탈북 아동·청소년과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경험과 인식세계를 여과 없이 이해하고 전달하여 탈북아동 청소년들이 학업 및 사회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탈북 아동·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의 선정 및 일반적 특성

탈북 아동·청소년의 초기 적응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 안에 설립한 '하나들 학교'의 아동·청소년과 이들의 초기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하나원에 입소한지 6주 이상 된 탈북 아동·청소년 중 교사에게 추천받아 학년과 성별의 분포를 고려하여 총 8명을 선정하였다(표 1참조). 이 연구의 대상 선정은 질적 사례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도적, 판단적 표집방법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즉, 북한 사투리가 심하지 않아 연구자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으며,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과 청소년을 선정하였다. 신분보장을 위해서 연구대상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하나원내에서 이들의 초기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 3명(남1, 여2)과 관계 공무원 2명(남)을 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명의 교사는 각각 보육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2. 자료수집 과정 및 분석

하나원 관계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조사를 허가 받았으며, 담당 교사와 연구방법, 시간, 장소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연구자들이 하나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종 문헌, 아동 및 청소년의 글과 그림, 문장완성검사(유안진·한유진·최나야, 2001) 실시, 심층면접, 하나원의 환경과 생활에 대한 관찰도 병행하였다. 문장완성검사는 총 28문항으로 자아지각(현실자아, 이상자아) 7문항, 환경지각(가족, 학교, 또래 환경) 10문항, 정서 6문항, 소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이부미, 2003)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초기정착 단계의

2)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근거로, 1999년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이 경기도 안성시에 개소되었다.

<표 1> 조사대상 탈북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번호	이름 (가명)	성별	연령	입국경로	가족관계	학력
1	박명수	남	12	중국2개월 체류, 몽고 경유입국	부: 북한에서 사망 모, 형(14세)과 함께 입국	초등 3
2	김진우	남	11	중국1개월 체류	부: 북한에서 사망 모: 2년전 탈북하여 서울 거주 할머니와 함께 탈북(형제자매 없음)	초등 3
3	최윤진	여	11	중국체류 2년 필리핀 경유 입국	부; 사망 모와 함께 입국 형제자매 없음	중국에서 초등2
4	박나영	여	9	북한 탈출 후 중국거처 바로 입국	부모와 함께 입국 형제자매 없음	초등 1
5	정진철	남	17	98년 탈출 후 북한으로 송환. 99년 다시 탈출 중국-베트남-캄보디아 거쳐서 입국	부: 먼저 입국하여 남한 생활 모, 누나와 함께 입국 형 뒤에 들어와 현재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있음	북한: 인민 4) 중국:초등 졸
6	마국진	남	18	97년 북한 탈출. 중국-베트남, 카보디아 거쳐서 입국	부: 사망 모: 함께 입국 형: 남한에 거주 누나: 중국 거주	북한: 인민 3 중국:초등 졸
7	김미희	여	16	중국1년 체류, 캄보디아 경유 입국	부: 북한거주 모, 동생과 함께 탈북	중 3
8	장영미	여	19	중국4년 반 체류, 캄보디아 경유 입국	북한에 부, 큰오빠, 여동생 거주. 어머니 95년 사망. 탈북한 둘째 오빠 인천 거주	중 3

탈북자 접근에는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연구대상자의 수에 비해서 연구기간이 길게 소요된 이유는 기관내의 사정에 의해서 약속 시간이 자주 취소되거나 변경되었고, 연구자가 약속을 하고 방문한 경우에도 면접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등 조사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 한 사람에게 소요된 심층 면접시간은 1~2시간이었다. 심층 면접을 하는 동안 문장완성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면접장소는 하나원내 도서관, 자료실 등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였으며, 모든 대화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탈북 아동·청소년의 인구학적 정보, 입국경로, 학업문제, 학교적응, 사회문화적 이질감과 동질감, 가족관계, 종교 등 적응 전반에 관한 것들이었다.

<표 2> 조사대상 초기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이름 (가명)	성별	특성
1	교사 A	여	보육교사 자격증
2	교사 B	남	초등교사 자격증
3	교사 C	여	중등교사 자격증
4	공무원 D	남	관계부처 공무원
5	공무원 E	남	관계부처 공무원

III. 연구결과 분석

1. 하나원내 탈북 아동의 적응

초등반 아동은 하나원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인근의 00초등학교에서 남한아동들과 어울리며 본격적인 위탁적응 프로그램을 받는다. 방과 후에는 하나원내의 초등반에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원 교사들은 초등반이 일반적으로 가장 적응을 잘한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새 옷이나 학용품 등 풍요로운 물질적 변화에 단순하게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1)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기대

00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탈북 아동들은 남한과 북한 교과서의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교과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용과 용어가 다른 사회과목을 어려워하였고, 영어와 컴퓨터를 특히 생소하다고 느꼈다. 수학은 가장 유사하다고 인식하였지만, 그것 역시 용어와 교수방법에 차이가 있어 그리 쉽게 극복하지 못하였다. 교사들은 수학문제의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과목의 성취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면접 아동 대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학업문제를 꼽았으며, 북한에서의 학업 수준 차이를 인식하면서 심적 부담감을 드러내었다.

나영 : 가장 걱정되는 점은 공부예요. 공부가 안될 때 화가 나요. 북한에서는 공부 잘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명수 : 수학 같은건 (내용이)같은데, 다른건(다른과목은)다르게 나와요.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교사 C : 수학을 잘 하는 애도 지문을 이해 못해서 수학과목의 성취도가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원에서의 초기 적응기간 동안에는 학업격차로 인한 학업부진과 스트레스를 아직 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상태이고, 남한에서의 새로운 출발이므로 공부도 '하면 된다'는 다소 막연한 기대와 함께 높은 포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에서는 출신성분 때문에 자신의 포부를 펼치는데 한계가 있지만 남한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진우(남, 11세)는 북한 인민학교 다닐 때 '매일 시험을 쳐가지고 낙제한 애들, 점수 낮은 애들은 청소하고 나머지 공부하고 갔는데 나는 일찍 갔어요'라고 말하면서, 남한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탈북과정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못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학업에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남한사회는 공부 어렵고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남한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굳센 각오를 보이고 있었다.

진우 :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법원(관사)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북한에서는 못해요.

아동들의 장래 희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직을 갖겠다는 의견과 종교인이 되겠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진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명수는 가족이 탈북과정에서 사경을 헤매다 자신의 기도로 살아났으며, 자신은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였다. 종교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소망은 탈북과정에서 종교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무수히 겪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동들의 장래 희망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북한 사회는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탈북한 어린 아동과 그들의 부모는 성별에 관계없이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전문직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2) 다시 시작하는 학교생활: 교사와 또래관계의 형성 및 갈등
학업 외에 탈북아동의 학교적응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교사 및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남한의 교사와 북한의 교사가 어떻게 다른지 질문하였다.

명수 : 북한 선생님들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때리고...(중략). 거기선 결석하고 그러면 집까지 데릴러 와서 종아리 걷어 올리고 맞고... 맞지 않으려고 학교 나오고.

윤진 : 남한선생님은 참 좋아요.

아이들의 말을 통해 북한에서는 교사에 의한 체벌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교사를 무서운 존재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남한의 교사는 '학생들을 잘 공부시키고 학생 마음을 알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체험담을 쓴 한 탈북 아동의 글에서는 '우리 선생님은 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자고 아이들은 생각한다. 나는 중국에서 마음씨가 나쁜 선생님을 만났었다. 그 선생님과 대비하면 지금 내가 다니는 선생님은 무척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남한 교사에 대한 지각은 긍정적인임을 알 수 있다.

00초등학교는 2001년 3월 1일부터 탈북 아동들의 학교 적응 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었고, '평생친구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00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한 아이들은 매월 들어오고 나가는 탈북 아동들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적어도 00초등학교에서는 탈북 아동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크게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남, 11세)는 '자신과 친구삼기 하겠다는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기도 했고, 진우(남, 12세)도 새로 사귀 친구라며 몇몇 아동의 이름을 대기도 하였다. 윤진(여, 11세)도 아이들이 '언니, 언니 하면서 잘 따르다'고 하면서 00 초등학교에서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말이 빨라서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할까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걱정이 된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였고, '친구들이 업신여기거나 욕할 때 화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 또래관계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아동들은 00초등학교의 생활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진우는 친구가 욕할 때 '북한에 있었으면 가만있지 않았어요. 나보고 새끼라고 하면 싫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엄마가 싸우면 안된다고...'라고 이야기 하였다.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친구의 놀림도 참아내며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탈북 아동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거주지 학교에 배정받은 후 적응에 대한 두려움도 드러내었다.

윤진 : 나가서 평생친구 해야지 여기서 평생 친구 해야 소용없어요. 나가면 딴 사람한테는 북한에서 왔다고 안 말할거예요. 내가 사실을 다 말하면 아이들이 나랑 안 놀까봐요.

명수(남, 12)와 면접 도중 동성인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서 이성인 남한의 여자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쑥스러워 하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면서 '북한 여자애들은 남자애들한테 조금만 뒤편이면 개새끼, 무슨 새끼라고 놀려요. 여자애들 부를 때 야! 간나야, 간나 그리고, 여자애 이름 부르면 놀려요'라고 덧붙였다. 여자 아이들(윤지, 나영)도 이성 친구에 대해서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남자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웃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거나 '관심 없다', '안 논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에서는 아동기에도 이성친구간의 또래관계가 남한처럼 자연스럽게 함을 엿볼 수 있었고, 이들에게 남한 아동의 자연스러운 태도는 낯설게 비춰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아동은 중국에서 한 두달 체류하거나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입국하여 학업공백 기간이 다소 짧은 편에 속한다. 진우의 경우는 몇 가지 맞춤법이 틀린 것을 제외하고는 남한의 아동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글씨를 잘 썼다. 그러나 학업의 공백이 긴 경우는 '말은 할 줄 알아도 글자를 쓸 줄 모르느' 아동도 많으며, 학습능력의 개별차가 매우 크다고 교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편입시 배정 근거는 북한에서의 학교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업공백이 큰 경우는 자신의 나이보다 어린 남한아동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학급의 또래와 연령이 유사하고, 학급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이해하는 경우는 탈북자라는 사실을 숙일 필요가 없어 학교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착지에서 배정받은 학교에서 연하의 남한 아동과 한 학급을 형성하게 되면 연령차에서 발생하는 열등감과 소외문제가 발생하고, 출신 배경을 숨기는 경우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을 하지 못해 적응하

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가족의 해체와 부모역할의 부재

부모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탈북한 경우는 드물며, 주로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가 중국에 있는 경우 재결합이 힘들고, 아버지가 먼저 나왔더라도 부부가 각자 재혼하는 일도 있어서 가족의 해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해체와 부모의 재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탈북 아동들은 방임과 유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A : 엄마들이 일찍 탈북을 하셔가지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탈북해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시니깐 재혼하시는 분이 많은 거 같아요. 아빠는 못 오고 엄마만 따로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만 오셔가지고 외로워 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있다보면 애들은 약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임·방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무관심 속에 돌아다니죠.

교사 C : 여기에서 애들에 대한 보호가 잘 안돼요 (중략). 애들 데로 나가서 놓고 애들을 챙기고 하는 걸 못 봤어요. 밥도 먹으면 먹나보다. (중략). 나가서도 어떤 부모는 최악의 케이스예요. 애들 버리고 나가서 시집 간다고 방치하고 아픈애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근데 (하나원에서)나가자마자 한달만에 시집 갔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들의 모습이 아니예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북한에서 탁아소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모질게 살면서 때론 매정하게 아이문제가 이렇게 방치된 걸 봐요. 안타깝죠.

부모들은 북한에서 출생 후 탁아소에서 성장하여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을 학습할 기회가 부족했고, 적절한 양육모델도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서는 아이들의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 방과후 활동 등 양육의 많은 부분을 국가에서 대행해 주었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의 양육 태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원내에 수용된 기간 중에도 부모들은 자녀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학업성취를 매우 강조하기는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교사 A : 안되면 매로 다스리는 게 많고요. 그저 욕박지르고 이런 게 많아요. 프로그램 중에 한 기수에 1-2시간 정도 부모교육을 하는데 그게 쉽게 안변하네요.

담당 교사는 하나원에서 두 달 동안 부모교육이 한 두차례 시행되고는 있으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원 내에서 아동들의 부모를 위한 집중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하나원 내 탈북청소년의 적응

면접 대상자인 여자 청소년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인상은 쌍꺼풀진 눈이 매우 예쁘고 나이에 비해서 키가 몹시 작다는 것이었다. 얼핏 보아도 2명의 여자청소년은 150cm가 못되어 보였다. 청소년기의 신장과 외모는 자신감과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탈북자라는 지위와 익숙하지 않은 사회문화적 환경, 학업의 격차를 실감하면서 위축될 탈북 아동에게 왜소한 체구는 또 하나의 '사회적 낙인'이 되어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심리적 억압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교사B는 탈북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으며, 체구가 크고 뚱뚱한 것을 부러워한다고 하였다.

1) 학업 및 진로에 대한 희망과 불안의 공존

탈북 아동에 비해 탈북 청소년의 학력은 더욱 다양하였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교육 공백의 개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들도 남북한의 과목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한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가 뒤쳐질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국어와 사회를 가장 힘든 과목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수학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인식하였다. 하나들 학교에서 치르는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모의고사에서도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과목 중 탈북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진철 : 외래어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 들겠어요.

미희 : 국어, 사회가 어려워요. 그런데 재밌어요. 사회가 신기해요. 여러나라 얘기가 나오고, 역사도 달라요. 북한에서는 다 김일성 이야기만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만 말하고 다른 나라이야기는 없어요. (중략) 대학가고 싶어요. 대학가서 공부 할 거예요.

북한에서 공부를 매우 잘했다는 미희(여, 16)는 남한으로 넘어온 이유에 대해 '북한에서는 골(머리)이 좋아도 토대(출신 성분)가 나쁘면 발전을 못해요' 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을 가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은 수줍어하면서도 이야기를 몹시 잘했고, 자신의 학업에 대한 욕심을 분명히 표현하였다. 장래의 진로에 대해 여자 청소년들은 '컴퓨터 관련 일'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좀더 실용적이고 직업과 바로 관련된 진로를 생각한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중국어, 의

대 진학 등 학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진로를 계획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남한에 오기 전부터 한국 사람과 접촉할 기회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면서 직업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원을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아야겠다는 것 외에는 장래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남자 청소년들은 의사가 되기를 희망했는데 북에서는 신분불안으로 희망이 없었으나, 남한에서는 학원 다니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 자신의 실력으로 의대가 가능한지 알지 못했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세운 목표가 남한 사회의 현실에 부딪치며 달성되지 않을 때 느낄 좌절감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영미(여, 19세)의 경우 나이가 많고 6년이란 학업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로 편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중, 고등학교 과정은 검정고시 시험을 보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보다는 기술을 배워 직업을 가지려고 하였다. 영미는 내년엔 성인이 되어 집과 주거비 50만원이 나오는데 매달 이십만원 이상의 학원비와 집세를 내고 나면 생활이 힘들게 된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반면, 미희의 경우, 남한에서의 대학생활에 대해 지나친 동경을 하고 있었다. 남자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대학뿐 아니라 군대에 가기를 희망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몇몇한 일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탈북자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 사회문화적 동질감과 이질감

탈북 청소년을 인터뷰할 때 받은 인상은 키가 작은 것을 빼놓고는 남한의 청소년과 외모나 말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이점에 대해 이야기 하자 중국에 있을 때 남한의 종교단체에 도움을 받았으며, 이때 남한사람을 많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하나들 학교의 교사들도 하나같이 지적하는 점은 탈북 청소년들이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부분이 문화적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옷차림, 머리 모양 등의 외모는 금세 따라하고 연예인 선망의식도 남한의 청소년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을 통해 들어오면서 이미 한국 문화에 익숙한 탈북자가 많다고 하였다.

남한과 북한과의 문화적 차이를 언제 가장 크게 느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들 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현장학습 방문시 느꼈던 점을 이야기 하였다.

영미 : 서울 롯데백화점에 갔었어요. 차가 들어가 기 바쁘게 어떤 여자가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와~~ 그 공무 태도.. 중국에서는 보고 안사가면 뒤에서 욕을 엄청 하거든요. 죽일놈 살릴놈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오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사고 가던 안사고

가던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거.. 진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희 : 남남 북녀라고 해서 남한여자들은 안 예뻐 줄 알았는데, 정말 예뻐요. 화장도 세련되게 하고 멋도 더 있어요. (연구자가 북한응원단이 예쁘더라고 말하자) 개네들은 다 뽀혀서 왔어요. 북한에 진짜 안 그래요. 개네들은 토대도 좋고 예쁜 애들만 뽑아서 온 거예요.

국진 : 남한은 서양물이 너무 많아요.

또 북한과의 차이점으로 '북한 사람들은 고정된 관념밖에 없어요. 오직 김정일이다 하면 김정일 밖에 모르고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북한은) 골(머리가)이 아무리 좋아도 토대(출신성분)가 없으면 발전 못 한다', '남한은 남자가 우세가 아니고 여자가 주장하는 것 같아요' 등등을 지적하였다.

영미 : 저 북한에 있을 때, 남자들은 자기가 힘세다는 걸 여자한테 너무 많이 표현하고, 여자들을 여자 취급을 안 하고 때려요. 막 패고 그러거든요. (중략) 북한에서는 남자가 위주로 하거든요. 남자가 우세고 여자를 깔보고 (중략) 그래서 한국에 온 이상 한국 사람이랑 같이 살고 어울려서 그러는 게 낫겠다 싶어요.

미희 : 남한의 남자들은 친절해요. 남한은 남자도 멋있고, 여자도 멋있어요.

남존여비사상, 강력한 부권주의 등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강하게 지배하는 북한의 성역할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특히 여성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여자 청소년들은 남한의 평등한 남녀 역할에 기대를 더 많이 하였으며, 남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고 있었다. 역으로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익숙한 남자 청소년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남북한 모두 버릇(생활하는 것)이 같고 사람들이 친절하며, 단결이 잘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쓰는 고조선의 후예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탈북자들을 다른 존재로 보는 우리의 시각과는 달리 북한 청소년들은 한민족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3) 남거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갈등의 시작

탈북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생사를 가리며 남한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다. 미희는 탈북시 아버지가 북한사람에게 붙들려서 북한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탈북하여, 곧 한국에 들어 오실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가족을 탈북

하게 한 것은 '골이 좋은 우리들을 (한국에서 공부 많이 하여)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에게 보답하려는 마음도 표현하였다.

진철 : 엄마(현재 아픔)가 너무 고생하셔서 무조건 잘 해드리고 싶어요.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남한생활의 적응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반면,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영미는 북에 남은 가족의 생사를 염려하고 있었으며, 남한사회에서 빨리 적응에서 남은 가족을 데려 오고 싶어 했다. 북에 있을 때의 가족분위기에 대해서는 '먹고 살기 바빠 부모는 일하고 어린 애들은 집에서 혼자 놀며, 가족간에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기억하였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엄하고 폐쇄적'이며, 어머니는 대체로 아버지보다는 덜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였다.

한편, 자녀들이 남한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학업을 강조하는 부모와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청소년 사이의 갈등도 엿보였다.

국진 : 엄마에게 바라는 점은요 어머니 날 좀 믿어줘요. 잔소리 그만.

3. 하나원 이후 : 정착지에서의 탈북 아동·청소년의 적응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두 달간의 초기 적응기간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정착지로 이주하게 된다. 가족이 있는 탈북아동과 청소년은 가족과 함께 정착지로 가게 되고, 무연고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 집이 나올 때까지 정부에서 연결해주는 '하늘꿈 학교' 등 기숙보호시설로 가게 된다. 이들에게 하나원은 고향과 같은 곳으로 아이들은 퇴소 후에도 메일과 전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어 하나원 교사 및 관계자들은 이들의 사회 편입후 적응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하나원 교사와 관계자를 면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하나원 이후 적응과정을 파악 하고자한다.

1) 학업문제 및 진로설정

탈북 아동 및 청소년은 남한과 북한의 상이한 교육체제, 문화와 용어의 차이, 학업공백으로 인해 남한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가 떨어진다. 북한에 있을 때의 학습능력과 남한에 와서 달라진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난다. 탈북 아동·청소년들은 학업에서의 부진과 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체적인 노력은 못하고 있다. 하나원 수료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겠다는 경우가 전체 청소년의 50~60%에 이르고 있으나, 남북한 교과목의 차이와 교수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학업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하나원, 2003).

교사 C : 처음에는 모두 새로운 각오로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만으로는 남한 학생들과의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죠.

부모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으므로 자녀의 학업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교회의 야학, 복지관의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자의 학습지도 등 민간자원의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탈북자 학생의 능력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방법과 학업격차의 보완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대학이나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에 있을 때 수학, 물리, 기하 등을 잘하여 특수 1고등학교를 다닌 미희(여, 16)의 동생처럼 수학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일반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들어가 적응을 시도한다. 그런데 교육시스템의 차이와 학업공백 등으로 자기보다 연령이 낮은 학급에 들어간 나이 많은 탈북 학생들은 학업문제와 함께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학원과 같은 비 정규 교육기관에서는 통제가 부족하므로 오락과 유희의 유혹을 받는다고 한다(공무원 D, E). 탈북 청소년들은 반복되는 학업의 실패로 좌절감을 겪고 의욕을 상실하며, 대학에 진학하여도 실제로 대학을 마치고 졸업하는 탈북자 학생의 비율은 매우 낮다(이기영, 2002).

최근 탈북 청소년의 효과적인 학업 지원을 위한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하늘꿈 학교는 중입, 고입, 대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검정고시 시험 준비를 돕는다. 학업의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대안학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또래의 남한 청소년과 교류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과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업 외에 기술을 익혀서 직업인으로 성장할 기회는 부족하다. 학업 외에 다른 진로를 모색해 볼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현재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은 전액, 사립은 반액 지원되나 예체능 분야나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학원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탈북 청소년들이 학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방면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사 C : 어떤 기술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성인도 없어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중략). 우리 애들은 중졸이기 때문에 어디 이력서를 낼 수도 없고요. 그런게 항상 걸려있구요. 그러다 보니깐 주로 배달을 하게되죠(중략). 예체능끼는 이정도면 굉장히 큰거거든

요. 북한이 예술의 나라잖아요(중략). 환영회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다해요. 한명도 안 빼먹고. 난 처음 봤어요 그냥 하는게 아니라 잘해요. 품금 아코디언부터 애들이 기본적으로 기타를 하구요. 애들은 노래를 잘 해요. 주체발성 같은.... (중략). 그런 재능들이 아깝게 버려지는 거거든요.. 살리지 못하잖아요. 애들이 다른 형태로 나 갈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나가야 하여야 겠죠. 애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형태에 그래서 "이런 것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잘하게 있거든요.

2) 사회문화적 적응

일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은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데 더 예민하고 빠른 시기이므로, 자신의 부모나 다른 가족들보다 빨리 현지 문화에 동화된다.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은 '하나들 학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때부터 남한사회의 청소년 문화에 민감하며, 이러한 문화 속에 편입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남한 사회의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의 적응을 비교적 순조롭게 한다.

교사 C : 컴퓨터 있잖아요. 카페 만들고 하는거... 매일 카페에서 메일이 날라와요... 문화적으로는 적응이 엄청 빨라요(중략) 언어적응도 빨라요. 처음에는 어휘가 많이 달라 힘들어하는데, 부산가면 몇 달 지나지 않아 부산사투리를 써요.

그러나 또래집단과의 연령차에서 오는 소외감과 따돌림, 남한 사람들과의 제한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낀다. 초기에는 남한사회에 편입되어 적응해나가기 위해 의식적으로 같은 탈북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회피한다. 그러다가 남한 청소년과의 교류형성이 원활하지 못하고 외롭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끼리 몰려다니며 문제행동을 일으킨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끼리 모여 오토바이 폭주족을 형성한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을 때에도 북한에서 왔으니 '나는 대접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선처를 기대한다. 실제로 담당보호관이 중간에서 부탁해서 무마시켜주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공무원 E).

면접 내용을 분석해보면 탈북 아동·청소년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요인이 발견된다. 먼저 가족은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학업부진, 소외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정서적인 지지원이 된다. 거둬되는 실패에 좌절하여 마음대로 살아버리고자 하는 충동이 있을 때도 가족의 존재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아온다고 한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청소년의 경우 이들을 통제하고 지원해줄 지원체계가 없다. 이 때문에 비슷한 처지의 탈북청소년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사회적인

일탈행위에 가담하거나 어린나이에 동거를 시작하기도 한다고 한다(공무원 D).

신앙도 이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탈북을 한 경우도 있고, 중국 등 제 3국에 있을 때 신앙을 가진 경우도 많다. 명수(남, 12세)는 몽고의 사막을 통과할 때 물이 없어서 가족들이 삶을 포기했는데 자신이 혼자 기도하면서 계속 걸었고 불빛을 발견해서 모두 살아났다고 한다. 이와 같은 체험은 신앙을 갖도록 하고, 신앙은 엄청난 변화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단체의 지원도 적응에 도움이 된다.

형사나 담당 보호관의 도움도 적응에 큰 힘이 된다. 교사 C에 의하면 지방 소도시로 가게 된 경우 담당 형사가 지역사회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직업을 소개해주고 지속적인 도움을 준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학업성취에 실패하면서, 거리를 배회하게 되고, 일탈행위를 하게 되며, 무질서한 생활로 지역사회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탈북자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 가양동의 경우 탈북청소년들의 주민 폭행이나, 오토바이 폭주, 남녀혼숙 등이 문제가 되어 민원이 제기된 적도 많다고 한다.

특히, 무연고 청소년은 하나원 수료 후 '탈북청소년지원 협의회'에서 선정하는 보호 단체 및 개인 후원자로 하여금 보호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단체에서 생활하는 경우, 엄격한 규율과 종교문제와 보호단체 간 생활비 차이 등의 이유로 보호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렇게 보호단체생활에 부적응하는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은 대부분 보호 단체를 이탈하여 탈북청소년집단에 들어가 혼숙하거나, 사회일탈행위를 행한다. 또한 개인 후원자의 경우에도 양자간의 갈등으로 탈북청소년이 후원인의 집을 나와 동료 탈북자 집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경우 현재 보호관리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호단체를 이탈한 탈북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외로움이며 따라서 무질서하고 비윤리적인 생활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오토바이 폭주나 남녀동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관계자 D와 E는 말하고 있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하나원 내 '하나들 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탈북 아동·청소년 8명과 관계자 및 교사 등의 심층 면접을 통해 탈북 아동·청소년들의 초기 학업성취 및 사회적 적응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탈북 아동·청소년들의 초기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아동·청소년은 연령에 관계없이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해서 학업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업에 매우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상이한 교

육체계, 탈북과정에서의 교육 공백 등으로 학업부진을 경험한다. 이러한 부적응 실태는 아동보다는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은 탈북 아동보다 학업 공백 기간이 더 길고, 학업 내용의 차이를 더 크게 실감하고 있었다. 학력수준에 맞추어 배정된 학교에서는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어린 동급생과의 갈등과 학습능력 부진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떠돌아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학습능력보전과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는 이를 위하여 대안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대안학교자체가 이들의 학업성취와 사회적응을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없으며, 이들이 진정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전제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되, 부분적으로 통합교육을 병행하고, 정규학교 진학 시 가능한 한 비슷한 연령으로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해당학년에 필요한 기초학습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만일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에는 남북한 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이것은 현재의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하나원내 '하나들 학교' 교육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절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탈북 아동의 경우도 처음의 열의와는 달리 학업부진을 경험한다. 부모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남한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보내지도 못하고, 학업을 직접 지도할 자원도 못된다. 탈북 아동의 학업 부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북 아동의 학업능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과후 교실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탈북 아동들이 많이 모여 사는 특정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탈북 아동의 학습과 적응을 돕는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사회 내 학교에서 남북한의 교육내용을 점목시켜 교육시킬 수 있는 탈북학생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탈북아동이 학교에 편입된 후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사례를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과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술을 익혀서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 하였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와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 청소년 중에는 학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취업과 연계되는 학원비에 대한 지원 혜택이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취업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탈북 아동·청소년들은 남한 문화를 매우 동경하면서 이 문화에 편입되고자 노력하지만 번번이 부딪치는 문화적 충격과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

탄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보다 청소년이 문화적응에서 갈등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의 문화에 민감하고 이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려 하나 남한의 청소년 문화가 매우 이질적이고 또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또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다. 선행연구(윤인진, 1999)에서도 남한사회에서의 법과 규칙, 개인주의적인 문화, 자기결정과 책임의 문화는 탈북자들에게 너무나 어색하여, 이들에게 자신은 이 사회에서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고독감에 빠져들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성인 탈북자와는 달리 탈북 아동·청소년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많은 흥미를 느끼며 빨리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은 이들의 적응을 돕는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On-Line 사이트를 구축하여 남한사회 생활 및 문화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과 북의 어휘 비교, 학습방법 및 학습자료, 또래관계에서의 갈등 대처방법, 남한의 놀이 문화 소개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는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상담서비스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족은 이들 적응을 위한 보호요인인 동시에 갈등 요인이다. 생사를 넘나드는 많은 역경과 고난을 함께 극복하면서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족원간에 서로 위해주고 보살피주는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50대 이전의 부모들은 출생 후 탁아소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부모역할 모델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북한 이탈 후 타국을 불안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떠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하여 한국에 입국 후에도 대부분 자녀를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기술의 부족은 가족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힘들게 하고 세대간 갈등을 증폭 시킨다. 특히, 부모의 따뜻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 아동에게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자질과 철학은 물론, 자녀양육기술도 함께 다루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이 없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나원 수료 후 적절한 보호와 감독의 부재로 사회에 방치되어 사회일탈 행동에 쉽게 가담하고 있다. 보호단체의 수를 늘리고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기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즐겁고 안정된 형태로 사회적응을 해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착금 지원과 주거제공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충분한 사회 적응 교육 없이 만 20세가 되면, 주거와 정착금을 제공하는 현 제도는 탈북청소년에게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사회일탈 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와 정착금을 제공하는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무연고 탈북청소년은 일정한 사회적응 훈련을 받고 사회편입 후 자기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후, 정착금과 주거를 제공 받도록 지원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참여와 주도하에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법적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했을 경우, 비교적 관대하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조치와 교육을 통해 일탈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탈북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하나원의 초기 적응 과정에서 교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중요한 지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교사는 엄격한 상과벌을 통해 훈육하고, 당과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강조한다(민성길, 2000). 이들은 북한의 교사와 비교하면서 남한의 교사들이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원의 초기 적응시기에 만난 교사와는 달리 정착지에서 배정받은 학교에서 만난 교사는 이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 아이들에게 오히려 건디기 힘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어린 아동에게 교사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작용하므로 담당교사가 이들의 적응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탈북 아동·청소년이 입학할 경우, 하나원에서의 학업과 적응에 관한 정보가 연계되어 담당교사가 탈북 아동·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이 교사와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한다. 또한 탈북자들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 함양과 바른 이해를 위하여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탈북 아동의 이해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탈북아동·청소년은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으나 탈북자를 흥미로운 이질적 존재로 부각(이기영, 2000) 시키는 남한 사람들의 낙인을 몹시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은 '북한 아이'가 아니며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는 진우(남, 11)의 말에서 남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바른 이해와 협동을 유도하면서 인식 전환을 꾀하기 위해서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 아동·청소년들이 정착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종합복지관에서 남북 청소년이 자주 접촉할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바람직해졌다.

이 연구는 탈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하나원내에 수용된 경우에만 한정하고, 하나원 수료 후 이들의 적응을 추적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령과 성별 외에 이들의 가족배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탈북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 시점에서, 탈북 아동·청

소년들의 초기 적응의 특성 및 문제점뿐만 아니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여과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탈북 아동과 청소년의 생생한 이야기와 각종 문헌 자료 및 문장완성 검사 등을 활용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후속 연구 설계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탈북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적응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제기하였다는 점 또한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 접수 일 : 2004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0월 01일

【참 고 문 헌】

- 김은배(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 개발원 연구보고서, 03-R-11.
- 남북 문화 통합교육원(2002 a). 더 크고 싶은 아이들, 2.
- 남북 문화통합교육원(2002 b). 하나둘 학교 이야기.
- 민성길, 전우택, 윤덕룡(1999). 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5(38), 1047-1062.
- 민성길(2000). *통일과 남북한 청소년*. 연세대출판부.
- 박모란(2002). *탈북아동의 남한사회 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경(1999).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영(2001). *사회사업적 관점에서 본 탈북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2003). 월간 *Keys*. 제 34-37호.
- 북한인권시민연합(2002). *생명과 인권*. 제26호, 겨울.
- 안혜영(200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엄경남(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부적응문제에 관한 유형 분석*. 한국 청소년 개발원 연구보고서, 01-R21.
- 이기영(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3(1), 175-224.
- 유안진·한유진·최나야(2001). 문장완성검사를 통한 시설 청소년의 자아 및 환경지각. *한국아동복지학*, 12, 42-76.
- 이부미(2003). *탈북가정 유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현장 연구: 탈북적응교육 훈련원(하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3(2), 115-145.
- 윤인진(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 장창호(2000).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5, 203-235.
-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 개발원 연구보고서.
- 전우택(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109-167.
- 정병호(2001). *탈북학생 사회 학교 초기적응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육정책연구*, 2001-1-05. 교육인적자원부.
- 조선일보(2004). 7월 8일자. 우리가 버린 탈북청소년들.
- 최영신(1999). *질적자료수집: 생애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 1-22.
- 탈북자 동지회(2003). 월간 *탈북자들*. 제 20호-28호.
- 통일부(200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지침서*.
- 하나원(2003). *탈북청소년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 하늘꿈 학교(2003). *하늘 꿈 첫 번째 이야기*.
- 한만길(199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교육 적응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99-11.
- Berry, J. W.(1988).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A Conceptual overview*. Berwyn, PA: Swets North America.